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외자 보험사 고위직, 중국인으로 대거 교체

□ 최근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외자계 보험회사의 고위관리자들이 외국인에서 중국인으로 대거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됨.

-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들 중 10여 개는 2009년 수입보험료가 2008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, 자오상시그나(招商信诺), 중더알리안츠(中德安联), 서우창애트나(首创安泰), 렌타이메트로(联泰大都会) 등은 전년동기대비 70% 이상 급감함.
- 이에 따라 서우창애트나 동홍량(董宏良, 대만인)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AIA 상하이 지사장이었던 장젠펑(張劍鋒, 중국인)이 대신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었으며, 루이타이생명(瑞泰人寿)의 딘 리처드 사장도 작년 6월 중도 퇴임하면서 중국인인 홍링더(洪令德) 전 광따용밍생명(光大永明人寿) 부총재가 후임으로 부임함.
- 특히, AIA는 중국 진출 20여 년간 외국인이 도맡았던 중국 수석집행관 자리에 차이장(蔡强) 전 AXA 홍콩행정총재가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작년 8월 취임함.

□ 이에 반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중국계 보험회사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음.

-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외국인 경영진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반해, 중국생명, 중국인민재산보험, 중국핑안보험, 중국타이핑양보험 등 메이저 중국계 보험회사들의 경영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안정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음.
- 한편, 최근 보험회사의 고위관리자의 잦은 자리이동이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얼마 전 <보험회사의 이사, 감사, 고급관리자 임직자격 관리규정>을 개정·발표하고 고위직 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천명함.

(북경진보, 1/27)